



신수정 광주시의장, '광주역 일일역장' 활동

광주시의회는 신수정 의장이 지난 14일 광주역 일일 명예역장으로 귀성객을 맞이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이날 일일 명예역장으로 위촉된 신수정 의장은 승차권 발급, 이용 안내, 고객맞이 인사 등 역 운영에 대한 체험을 하고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과 교통 현황을 살폈다. 또 신 의장은 명절에도 안전한 열차 운행과 편안한 고객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광주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신수정 의장은 "시민들의 안전한 귀성길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광주역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광주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민심을 청취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정호 광주관리역장은 "지역과 활발히 소통해 함께 성장하는 코레일 광주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광주교통공사,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광주교통공사는 최근 광주승정역 일대에서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열고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승강기 이용 방법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사진)

18일 광주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캠페인에서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승강기 이용시 △안전 손잡이 잡기 △안전선 안에 탑승하기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교통약자 및 무거운 짐 소지 고객은 엘리베이터 이용하기 등 승강기 이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앞서 광주교통공사는 올 한 해 금남로4가역 등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총 9대의 안전부품을 순차적으로 교체해 안전을 강화했다.

하반기에는 각 역사 에스컬레이터의 대대적인 안전장치 보강 작업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한 승강기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플라스틱 조화 줄이기 캠페인

광주시는 광주도시공사와 함께 추석 당일인 지난 17일 영락공원에서 '플라스틱 조화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추석 명절에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생화를 사용하는 친환경 추모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광주시는 영락공원을 찾은 성묘객들에게 2000송이의 생화를 나눠주며 친환경 추모문화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플라스틱 조화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혼합재질로, 장기간 햇빛에 노출되면 미세플라스틱이 대기를 오염시키고, 소각하거나 매립할 때도 탄소를 배출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캠페인에 참여한 성묘객들은 "생화를 사용해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것이 추모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할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친환경 성묘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 광산경찰, 협력단체 범죄예방 합동순찰

광주 광산경찰은 지난 12일 유흥가, 학원가 밀집지역 등 112 범죄 신고가 집중되는 침담지역에서 경찰과 시민으로 구성된 협력단체와 함께 야간순찰을 전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이번 합동순찰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딥페이크 예방요령 홍보를 비롯한 유흥가 주변 마약, 음주운전, 무질서 등을 추방해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광산경찰, 기동순찰대, 자율방범대와 생활안전협의회 등 70여명이 참여하는 공동체 치안활동 일환으로 실시됐다. 특히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신흥 유흥가, 상가 변화가와 청소년 유동이 많은 학원가, 공원 주변을 대상으로 시민과 함께 순찰하며 시민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범죄예방 전략을 수립, 반영하는 계기가 됐다.

이관형 광주광산경찰서장은 "시민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치안활동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광산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광주 광산구, 송정역서 감염병 예방 캠페인

광주 광산구는 지난 13일 광주승정역에서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이번 캠페인에서는 긴 명절 연휴 동안 감염 위험성이 높은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과 가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등 주요 감염병에 대해 알리고 △올바른 손 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히고 물 끓여 마시기 △채소, 과일 등 깨끗한 물에 씻기 등을 홍보했다. 광산구보건소는 지난 5월부터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대응을 위해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최근 폭염과 국지성 호우 등 감염병 발생 위험이 큰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며 "설사, 구토 등 위장관감염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호흡기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상철 기자**



전남도,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행안부장관상

전남도는 최근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진행된 '제41회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스마트 약취 통합관리센터 구축'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연구과제를 발표한 나주시는 지속적인 약취 민원 증가에 따라 약취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혁신기술에 기반한 체계적인 약취관리로 시민의 건강 기본권과 환경권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 약취통합관리센터 구축 및 약취전담팀을 신설하고, 스마트 약취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한 약취민원 접수, 이력 관리, 처리 상황 등 시민과의 소통 서비스 제공에도 나섰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약취관리 운영 및 약취민원 감소, 현장 투입 업무 담당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시스템 효과성 측면에서 심사위원들과 현장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오지현 기자**



빠르다 '베테랑2' 옛세만에 400만명 돌파

영화 '베테랑2'가 공개 옛세만에 400만 관객 고지를 밟았다. (사진)

CJ ENM은 18일 "‘베테랑2’가 이날 오전 9시 기준 누적 관객수 400만명을 넘겼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관객수는 371만명이었다. 전작인 '베테랑' (2015)이 같은 기록을 내기까지 9일이 걸렸다. 올해 1000만 영화 중 한 편인 '파묘' 역시 9일이 걸렸다. '베테랑'은 1341만명이 봐 역대 한국영화 흥행 순위 5위에 올라 있다.

'베테랑2'는 형사 '서도철'이 범죄자만 골라서 살해하는 연쇄살인마 해치를 잡기 위해 나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배우 황정민이 전작에 이어 서도철을 연기했고, 장윤주·진경·정만식·신승환·오대환·김시후 등과 다시 한 번 호흡을 맞췄다. 여기에 정해인이 새로 합류했다. 정해인은 서도철의 강력범죄수사대에 새로 합류한 '박선우'를 맡았다. 연출은 이번에도 류승완 감독이 했다. **뉴시스**

데뷔일 맞은 아이유 취약 계층에 2억5000만원 성금

가수 아이유(사진)가 데뷔 기념일을 맞아 2억5000만원을 내놨다.

소속사 EDAM 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가 활동명과 공식 팬클럽명 유애나를 합친 '아이유애나'라는 이름으로 한국어린이난치병협회·사단법인어르신익안부름문은우유배달·한사랑마을·한사랑영아원에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이유는 "유애나 덕분에 사랑으로 찬 마음과 가치관을 갖게 됐고, 아이유애나 이름으로 이렇게 매년 뜻깊은 일을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작은 도움이지만 받는 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이유는 팬에게 받은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매년 데뷔 기념일마다 아이유애나 이름으로 기부하고 있다. 아이유는 지난 1월 사회 취약 계층 난방비 지원을 시작으로, 5월엔 생일을 맞아 총 2억원을 기부했다. 또 데뷔 기념일 외에도 아이유는 어린이날·연말연시·생일 등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해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아이유는 오는 21~22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 **뉴시스**

지민, 美 빌보드 양대 메인차트서 8주 연속 상위권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지민(사진)이 솔로 2집 '뮤즈'와 타이틀곡 '후(Who)'로 미국 빌보드 양대 메인 차트에서 장기집권하고 있다.

17일(이하 현지시간)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9월21일 자)에 따르면, '후'는 이번 주 '핫100'에서 30위를 차지했다. 8주 연속 상위권에 자리하며 지민의 현지 인기를 실감케했다.

'뮤즈' 역시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 102위에 오르며 이 차트에 8주 연속 머물렀다.

앞서 빌보드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예고한 것처럼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리더 RM(김남준)이 피처링해 미국 스타 래퍼 메건 디 스틸리언이 지난 6일 발매한 신곡 '네바 플레이(Neva Play)' (feat. RM)는 이번 주 '핫100'에서 36위를 차지했다.

방탄소년단으로서 여섯 번 1위를 비롯 해당 차트에 수차례 진입한 RM이 솔로 자격으로 이 차트에 들어온 건 이번이 두 번째다.

K팝 4세대 간판 걸그룹 '르세라핌(LE SSERAFIM)'의 미니 4집 '크레이지(CRAZY)' 타이틀곡 '크레이지'

는 이번 주 '핫100'에서 88위를 차지하며 해당 차트에 2주 연속 머물렀다. 지난 주 7위로 '빌보드 200'에 데뷔한 르세라핌의 미니 4집 '크레이지'는 이번 주 54위를 차지하며 역시 이 차트에 2주 연속 들었다.

K팝 간판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쯔위가 지난 6일 발매한 솔로 데뷔 앨범 '어바웃 쯔(abouTZU)'는 이번 주 '빌보드 200'에서 19위로 데뷔했다. 이에 따라 트와이스에서 솔로 활동을 병행한 멤버들 모두 '빌보드 200' 톱20에 데뷔했다.

앞서 나연은 미니 1집 '아이엠 나연(IMNAYEON)'과 미니 2집 '나(NA)'를 모두 '빌보드 200' 7위에 올렸다. 지효는 미니 1집 '존(ZONE)'으로 '빌보드 200'에서 14위를 차지했다.

해당 차트에서 1위를 찍은 대세 K팝 그룹 '스트레이 키즈'의 미니 9집 '에이트' 역시 '빌보드 200'에서 장기 흥행 중이다. 이번 주 98위를 차지하며 8주 연속 해당 차트에 머물렀다.

뉴시스